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배포시	배포일시	2021. 10. 13.(수) 13:00
담당과장	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지광철 (044-215-8710)	담당자	이명진 사무관 mjlee53@korea.kr
	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윤정인 (044-215-8720)		박중민 사무관 pymwm@korea.kr
	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 박민주 (044-215-4840)		이동훈 사무관 ldh5758@korea.kr

홍남기 부총리, 국제통화기금(IMF) · 세계은행(WB) · 미주개발은행(IDB) 3대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면담 실시

-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 D.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 회의, 국제통화위원회(IMFC) 참석을 계기로,
 - 10.12(화) 클래버-커론(Clever-Carone) 미주개발은행(IDB) 총재, (16:00, 현지시간) 및 맬패스 세계은행(WB) 총재(17:00),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(IMF) 총재(18:00)와 양자면담을 진행
-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면담을 통해 세계경제 동향 및 국제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눔
 - 특히, 코로나 19 상황에서 개도국·저소득국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 등에 대해 한국과 각 기구간 협력 강화방안과 상호 관심사를 논의

1. 미주개발은행 총재 면담 (10.12일, 16:00, IDB 회의실)

◇ 재정혁신협력기금 2천만불 추가 출연의향서(Letter of Intent) 체결을 통한 한-IDB 협력 강화 및 중남미 인프라 개발 등 지원

- 홍 부총리는 중남미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클래버-커론 총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,
 - IDB Vision 2025* 실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국정부도 신탁 기금, EDCF-IDB 협조융자** 및 지식공유사업(KSP) 등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힘
 - * 클래버-커론 총재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IDB 내 중장기 전략으로 지속가능 성장, 저탄소 경제 실현 등이 목표
 - ** 협조융자 퍼실리티 갱신('21.8월): '18~'20년 3억불 → '21~'25년 5억불
 - 이에 총재는 한국의 개발경험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기업의 對중남미 투자 지원 요청
- 홍 부총리는 재정혁신협력기금* 출연의향서(Letter of Intent)가 한-IDB 관계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, 동 기금이 중남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재의 관심과 지원 당부
 - * 중남미 국가비전 수립, 세제 및 예산 등 공공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'12년 4천만불 출연 후 2천만불 재출연
 - 이에 총재는 동 기금 재출연에 더해 한-중남미 비즈니스 서밋(KOR-LAC Business Summit)* 개최를 통해 한-IDB 협력 강화 기대
 - * 기재부-IDB가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정례 행사로 '07, '11, '15, '17, '19년 개최하여 한-중남미 경제협력 방안 모색('22년 하반기 개최 계획)
- 총재는 내년 연차총회 계기 IDB 증자를 논의할 계획이며 한국정부의 지분(0.004%) 확대 적극 참여 희망
 - 이에 홍 부총리는 내년 증자 논의 시 한국정부의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며 IDB 내 한국 지분 확대 의지 표명
-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한국 인력의 IDB 진출에 대한 총재의 관심도 당부했으며,
 - 이에 총재는 홍 부총리에게 우수한 한국 인력의 IDB 진출을 위한 관심 약속

2. 세계은행 총재 면담 (10.12일, 17:00, WB 회의실)

- ◇ ①개도국 지원에 필요한 **재원격차 대응**을 위해 **민간재원 동원의 중요성**,
② **IDA-20에 대한 재원보충 적극 참여 요청**, ③ **'혁신·기술 허브'로서 3기 출범한 WB 한국사무소**를 통해 **한-WB 협력 강화** 등 논의

- **홍 부총리와 WB 맬패스 총재**는 향후 개도국 지원에 필요한 **재원격차(Financing Gap)에 대응**하기 위해 **민간재원 동원의 중요성**에 의견을 같이 하였고,
 - 글로벌 경기 회복 과정에서 산업 간 격차 확대, 인플레이션, 공급망 교란 등에 **적극적 대응**이 필요하다는데 공감
 - 홍 부총리는 한국 백신접종 관련, 10월 중 70% 이상 인구가 접종을 완료하고,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일정을 언급
 - 또한, 홍 부총리는 WB가 개도국의 **경제회복과 디지털·그린 경제로의 전환** 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,
 - 최근 총재가 강조하는 **녹색·회복·포용적 개발(GRID*)**에 공감하고 한국도 그린뉴딜, 탄소중립 2050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
- * **G**reen, **R**esilient and **I**nclusive **D**evelopment
- 총재는 금년 12월 결정되는 **IDA*-20 재원보충**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고, 이에 홍 부총리는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
- * 국제개발협회(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): WBG 내 기구 중 하나로 1인당 GNI \$1,205 이하인 최빈국에 무상공여, 고양허성 차관 제공
- 덧붙여, 홍 부총리는 **'혁신·기술 허브'로서 3기*가 출범**(‘21.7월)한 WB 한국사무소에 한국정부가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,
 - * (1기) 670만불(‘14~‘16) → (2기) 1,900만불(‘18~‘20) → (3기) 3,000만불(‘21~‘23)
 - 총재는 한국사무소가 최근 한국의 **코로나19 성공적 대응경험**에 대한 공동연구 등 성과를 언급하며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약속
 - 마지막으로, 홍 부총리는 WB 내 우수한 한국인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, 총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

3. IMF 총재 면담 (10.12일, 18:00, IMF 총재 집무실)

◇ 홍남기 부총리와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금일 발표된 세계경제 전망(World Economic Outlook)을 바탕으로 ①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, ②세계경제 회복과 미래대비를 위한 IMF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

□ IMF 총재는 금년 세계경제 회복세는 지속되나,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가간 성장격차도 더욱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

○ 공급망 차질, 코로나 확산, 인플레이션* 등에 따른 하방리스크가중으로, 백신 보급, 정교한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고 언급

* Three stones in our shoes: Health concerns, Supply disruptions, Price pressures

□ 한편 IMF 총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 글로벌 모범 사례로서 한국의 경험 공유를 부탁

○ 홍 부총리는 세계전망의 하향 조정 가운데 한국의 성장 전망유지는 고무적이라고 언급하며,

- 백신접종률 제고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중이며, 통화정책은 서서히 정상화 과정에 있으나, 재정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편성을 추진중이라고 설명

- 더불어, 내년 초에 있을 한국 연례협의('22.1월 예정, Article IV)에서 IMF의 적극적인 조언과 관심을 당부

□ 또한 홍 부총리는 저소득국 지원기금(PRGT*) 재원확충에 4.5억SDR을 참여하고 IMF 內 회복·지속가능성 기금(RST**) 신설을 지지

*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: 저소득국 빈곤완화 및 구조조정 기금
(한국은 현재 10억SDR 공여중(전체 287억SDR의 3.5%, 9위) + 4.5억SDR 추가 공여)

**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: 기후대응 등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

○ IMF 총재는 PRGT 공여 및 RST 신설 지지 등을 환영하며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 확대에 감사를 표함

- 홍 부총리는 국경간 자본흐름 확대, 가상자산 등 새로운 국경간 결제수단 확대로 전통적인 거시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, 각 국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권고도 요청
- 특히,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조치 등이 내년초에 있을 자본 흐름에 대한 IMF 공식입장(IV*) 재검토시 반영될 필요성 강조
 - * Institutional View on the Liberalization and Management of Capital Flows
 - 또한, 충격의 특성과 각 국 상황을 고려한 최적정책을 모색하는 IPF* (Integrated Policy Framework)도 환영한다고 언급
 - * Integrated Policy Framework: 성장·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을 모색하기 위해 충격성격, 각국 특성을 종합고려하는 접근법으로 IV 재검토시 활용 예정
- 게오르기예바 총재도 급변하는 경제·금융 정책환경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, 각국의 경험과 참여를 통해 IV를 재검토하겠다고 응답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@korea.kr

